김 정 현 | 동화작가
(4201708@hanmail.net)

하천과 동화

시냇물과 바위

오늘은 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물이라 하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 세상 모든 생물에게 물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한테 귀중한 것이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물이 제일 힘세다는 것에는 2학년 3반 아이들은 의아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옛날 오랜 옛날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거만한 바위와 심술궂은 바람과 얌전한 시냇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위와 바람은 항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다고 큰 소릴 치며 뽐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냇물은 언제나 얌전하기만 하고, 맑고 고운 목소리로 산새들과 더불어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루는 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이 찾아왔습니다.

"나 오늘 너희들한테 온 것은 나 대신에 저 산을 다스릴 임금을 정하고자 왔느니라."

산신령은 말을 했습니다.

"정하는 데는 조건이 있느니라. 그것은 누가 힘이 센지 겨

뤄서 이기는 자에게 임금의 자리를 주는 거다."

산신령의 말에 바람과 바위는 당장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러잖아도 난 언제 이 산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 보나 하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금시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빠졌던 것입니다.

산에는 온갖 것이 있지요. 온갖 나무들과 짐승들, 산새들이 있지요. 나무에는 밤이니 잣이니 다래니 머루니 하는 맛있는 열매도 있어요.

나무 말고 풀도 많아요. 풀에는 산삼이니 도라지니 더덕이니 하는 어른들이 참 좋아하는 것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온갖 예쁜 꽃도 많아요. 산에는 금덩어리도 있는 거예요. 금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금덩어리 때문에 사람들은 싸움을 하기도 하죠. 서로가 갖겠다고 싸우는 것이죠.

이러한 산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겠다고 바위와 바람이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죠. 차지할 게 많고 보면 누구나 욕심내게 마련인데 바람과 바위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다고 거만 떨며 진작부터 임금이 되겠다는 야심도 있었으니 그들이 욕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시냇물은 임금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없었어요. 자유롭게 노래 부르며 강으로 바다로 여행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임금이 되면 맘대로 돌아다니거나 여행을 못한다는 것을 냇물은 잘 알고 있었어요.

바위와 바람은 기어코 힘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누가누가 힘이 세나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네 맘대로 불어라. 내가 쓰러지는가 흥?"

바위는 떡 버티고 서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바람은 그 말에 금시 핏대가 올라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세차게 불어댔습니다. 근처 나무들은 뚝뚝 부러지고 쓰러지고 했습니다. 모래와 흙이 솟구치듯 하고, 허공에 흩날리기도 했습니다. 무섭게 불어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채만한 바위는 끄떡도 하지 않고 약이라도 올리는 듯 히죽이죽 웃고만 있었습니다.

바람은 몇 날 몇 달을 불었습니다. 바위는 그래도 그 자리

에서 한발짝도 물러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람은 지쳐서 손을 들었습니다. 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바위가 임금이 되나요? 아니었습니다. 산신령님은 냇물과 대결하라 했습니다. 역시 힘 싸움에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냇물은 내키지 않았지만 산신령님이 명령하듯 하여 바위와 힘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저게 무슨 힘이 있다구?"

바위는 처음부터 낄낄 웃어댔습니다.

시냇물은 바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야. 간지럽다. 더 세게 부딪쳐라!"

바위는 오히려 간지럽다고 소리쳤습니다. 냇물이 돌진하여 부딪치는 것을 가지고 시냇물은 계속 돌진하여 자기 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딪치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바위는 꼼짝도 아니했습니다.

산신령은 연약하게 보이는 냇물이 쉴 새 없이 바위한테 대들며 멈출 줄 모르는 것을 보고 끈기가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고 감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를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달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바위는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의 밑바닥이 이상했습니다. 흙이 파이고 구멍이 나기도 했습니다. 산신령은 그 모습을 보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를 알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곧 넘어지겠구나."

산신령은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산신령의 그런 표정이 있고 얼마 안가서 바위는 눈으로 확연히 느낄 수 있게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끙끙거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위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넘어질 듯 넘어질 듯 보였습니다.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함께 노래하던 새들이 물의 승리를 믿은 듯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성급하게 승리의 노래를 불러준 새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바위는 쾅! 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시냇물이 이겼습니다. 시냇물이 힘이 더 세었습니다. 시냇물은 바람과의 힘내기에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잔잔한 물결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위처럼 부서지고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연약하게 보이는 시냇물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다 할 수 있겠지요.

결국 산신령은 시냇물을 산의 임금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잘 다스리라고 당부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시냇물이 산의 임금이 된 후 산골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누가 힘자랑하는 일이 없고, 누가 욕심을 부리는 일도 없고, 바위처럼 혼자 자리를 차지해서 꽃이랑 풀이랑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고, 심술궂은 바람처럼 나뭇가지를 꺾거나 뿌리를 파헤치고 하는 짓이 없는 아주 평화스러운 풍경만 보여주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산토끼랑 다람쥐랑 노루도 아무 두려움 없이 임금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서 함께 놀고 했습니다.

임금님이 계신 물가에는 나무도 잘 자라고 풀도 잘 자랐습니다.